교회소식 Announcements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주일예배

미국교회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이번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3. 대강절(Advent) 세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신앙을 붙드는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4. 예배 안내

12월 25일(주일) : 성탄축하주일
1월 1일(주일) : 신년감사주일
* 올해 송구영신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5. 카톡 채널 안내

외부에서 저희 교회소식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카톡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가입하셔서 교회소식등을 매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12/4)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US$87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빌립보서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2022.12.11 (477호)

함께하는교회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Worship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형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1:43-51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야곱과 이스라엘의 비밀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2월 18일	12월 25일(성탄주일)
서경열	최은숙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1월부터 시작합니다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목회칼럼 Pastoral Column

크리스마스 송가

"아무래도 저 영감이 미친 것 같아. 저 지독한 구두쇠가 지나가는 거지에게 돈을 주다니."

"난 이제 새로 태어난 스크루지 야, 메리 크리스마스!"하며 퇴장하자 돈을 받은 거지가 한마디 내뱉는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찰스 디킨즈의 희곡 〈크리스마스 송가(Christmas Carol)〉 마지막 대목입니다. 바로 스크루지가 변화되는 이야기죠. 그는 매우 괴팍한 데다가 털끝만큼도 자비라는 것을 모르는 고집불통 욕심쟁이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던 그가 크리스마스이브 밤에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유령은 그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으로 데려가 그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무언가를 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느라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좁은 시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남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끝나고 눈을 떠보니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창문을 여니 따스한 아침 햇살이 자신의 얼굴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저 골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캐럴 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전에는 아침이 싫었습니다. 눈을 뜨는 게 지겨웠습니다. 모든 것이 소음으로 들렸고 짜증 낼 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기적 시선에서 벗어나 세상을 보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애써 기쁘기 위해 노력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자신의 우울한 삶을 포장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그 우울함은 다시 반복되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무언가 자신의 틀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삶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될 뿐입니다. 자신의 틀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불가능한 것 같은 굳게 닫힌 마음의 철문이 열리는 날입니다.